



# 한국도 시즌제 드라마 정착하나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라도 종영할 즈음에 시즌 2에 대한 계획을 물으면 확실한 대답을 듣기 어려웠다.

제작진은 “하고 싶어도 배우들 스케줄 조율이 관건”이라며 즉답을 피했고, 실제로 후속 시즌을 내놓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곤 했다.

2016년 방송된 SBS 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가 대표적이다. 시즌2는 시즌1 종영 3년 만에 방송됐고, 시즌 3는 그로부터 3년 후인 지난해 전파를 뒀다.

요즘에는 달라졌다. 20일 방송가에 따르면 미국 드라마처럼 사전 제작 후 공개되는 작품들이 몇 개월 간격으로 새 시즌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예컨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경성크리치’는 처음부터 시즌 1·2를 몰아서 촬영했고, 1년 이내에 두 시즌을 모두 공개했다.

7개월간의 촬영에 이어 후반 작업을 거쳐 2개 파트로 나뉜 시즌1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 공개했다. 시즌2는 시즌1 파트2를 내놓은 지 약 8개월 만인 지난달부터 볼 수 있게 됐다.

넷플릭스 ‘스위트홈’과 ‘오징어 게임’도 첫 시즌 공개 후 나머지 두 시즌을 사전 제작했다.

‘경성크리치’·‘오징어게임’ 등 사전 제작 후 시즌제 공개 이어져 “스토리텔링 등 아직은 과도기 노하우 쌓이면 장수 시즌 나올 것”

‘스위트홈’ 시즌 2와 3는 7개월 간격으로 공개됐고, ‘오징어 게임’도 시즌 2를 12월 26일 공개한 뒤 내년 중 시즌 3를 공개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시즌제 드라마 제작이 확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반드시 흥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할리우드에서는 보통 파일럿 시리즈를 통해 대중의 반응을 미리 확인하고, 아예 시즌 단위로 계약을 맺어 출연진과 제작진 연속성을 담보한 채로 작품을 제작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후속 시즌이 첫 시즌만큼 성공을 거둬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제작된 OTT 드라마 중 시즌2가 전작을 뛰어넘는 성적을 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D.P.” 시즌1은 군무이탈체포조를 중심으로 한 군내 부조리를 다뤄내며 주목받았지만, 두 번째 시즌에서 군내 권력 다툼에 초점을 맞추며 작품만의 색을 잃었다는 혹평을 받았다. ‘스위트홈’에 대해서는 세계관을 무리하게 확장하려고 시도하다가 길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시즌제가 정착하려면 그에 적합한 지적재산(IP)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구상하고, 긴 호흡으로 전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 평론가는 “기존처럼 한 시즌 안에 완결성 있는 이야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즌제 드라마가 하나의 제작 형태로 자리잡아가는 과도기에 있다. 긴 이야기의 시즌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 배치나 호흡 조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데,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10개 시즌을 넘기는 ‘미드’처럼 장수 시리즈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한 인물 두 인격 여주 놀라워라”

### ‘나의 해리에게’ 신혜선 연기 호평...시청률 상승

해리성 정체성 장애로 두 인격을 갖게 된 주인공이 등장하는 ENA의 로맨스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가 후반부 들어 시청률이 상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두 인격을 연기한 주연배우 신혜선의 뛰어난 연기력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설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3일 방영을 시작한 12부작 월화드라마 ‘나의 해리에게’는 아나운서인 주인공 주은호(신혜선 분)에게 두 번째 인격 주혜리가 생겨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작품으로, 20일 현재 8회까지 공개됐다.

주은호는 새벽부터 낮까지는 ‘PPS’라는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퇴근한 뒤에는 두 번째 인격 주혜리로 변신해 ‘미디어N’이라는 방송사의 주차관리실에서 일한다.

드라마 초반 주혜리는 자신이 주은호가 된 꿈을 꿴다고 생각하는데, 상담받던 정신과 의사에게서 “사실 해리 씨는 은호 씨와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 인격이 생겨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후 드라마는 주은호와 주혜리 두 사람의 생활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주은호에게 왜 새로운 인격이 생겨났는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인물들이 각자 품고 있는 아픔이 조금씩 드러난다.

주은호는 실종된 여동생 주혜리를 잊지 못하다가 결국 해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기로 한다. 그는 해리가 남긴 수첩에서 주차관리실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는 글을 발견하고 직원으로 채용도 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에서 일한다.

주은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은 뒤 여동생 주혜리가 언니인 자신에게만 의존하려 하자 야단치며 등을 떠밀듯 졸업여행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해리는 그 여행에서 실종돼 돌아오지 못했다.

주은호는 처음엔 자신의 의지로 여동생의 삶을 살아보기로 하지만, 점차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연인과의 이별에서 온 충격 등이 겹쳐 주혜리라는 인격이 분리되고 해리가 된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나의 해리에게’ 시청률은 첫 방송에서 2.0%에 그쳤으나 이후 차츰 올라 최근 3회 연속으로 3%를 넘겼고 가장 최근 방영된 8회는 자체 최고치인 3.5%를 기록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ENA가 그간 방영한 월화드라마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다.

화제성 조사 회사인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주간 화제성 순위에서도 ‘나의 해리에게’는 9월 3주 차 전체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가운데 4위에 올랐다. 최근 여러 TV 채널과 OTT 플랫폼이 다양한 로맨스 장르 드라마를 선보였는데, 이 가운데 ‘나의 해리에게’ 화제성이 가장 높다.

/연합뉴스

## 세븐틴 ‘스필 더 필스’ 닷새 만에 300만장

그룹 세븐틴(사진)의 열두 번째 미니앨범 ‘스필 더 필스’가 발매 후 닷새 만에 300만장이 넘게 팔려 올해 K팝 앨범 중 가장 짧은 시간에 ‘트리플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19일 음반 집계 사이트인 한터차트에 따르면 14일 발매된 이 앨범은 전날까지 306만6825만장 판매됐다.

올해 발매된 K팝 앨범 가운데 발매 첫 주에 300만장이 넘게 팔린 작품은 ‘스필 더 필스’가 유일하다.

‘스필 더 필스’는 선주문량만 350만장에 육박했고, 발매 당일에만 250만장 가까이 팔려 일찌감치 흥행을 예고했다. 유명 프로듀서 DJ 칼리드가 참여한 타이틀곡 ‘러브, 머니, 페임’(LOVE, MONEY, FAME)은 주요 국내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세븐틴은 22~23일(현지시간) 미국 로즈몬트에서 공연을 시작해 뉴욕, 텍사스, 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투어 ‘라이트 하이’(RIGHT HERE)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